

다문화사회와 가톨릭의 종교교육

김 경 이

가톨릭대학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와 종교교육에 대한 가톨릭의 가르침, 가톨릭 종교교육 현황, 가톨릭 종교교육의 도전과 과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문화사회의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성경과 교회문헌을 고찰하여 확인한 사항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관, 인간의 다양성을 환영하며 다른 전통에 대한 열린 마음, 비그리스도교인에 대한 존중, 인간의 권리로서의 종교자유,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신앙, 복음화를 위한 종교교육을 근간으로 하지만 더불어 타종교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종교교육, 환대·연대·개방성이라는 이민자 사목의 원리, 신앙인의 거룩한 의무로서의 낯선 자에 대한 환대 등으로 이는 다문화사회의 가톨릭 종교교육에 대한 주요한 가르침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가톨릭 종교교육의 현황에서는 아직까지 성당과 가톨릭학교의 종교교육에서 다문화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종교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톨릭의 이주민 지원 단체들은 복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첫 환대’를 실천해 오고 있었으며 이주민을 위한 신앙교육의 비중이 높아져야 함을 인식하고 최근 신앙교육을 시작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다문화사회에서의 가톨릭 종교교육의 실천에 있어서는 종교교육에 대한 오해와 편견 없애기, 환대 가르치기, 대화와 경청의 종교교육, 학습하는 종교교육자, 종교교육에 대한 교회와 학교 공동체의 통합적 접근, 종교교육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지원과 현장의 연대 등이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주제어: 다문화사회, 가톨릭 종교교육, 다문화 종교교육, 이민, 환대

I. 서론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단일민족, 단일문화권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각급학교 교과서에는 단일민족에 대한 내용을 자부심과 함께 다루어 왔다.¹⁾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년 4월에는 한 초등학교 전체 학년에서 한민족 단일 공동체라는 동일한 주제로 글을 쓰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학문적 비학문적 영역에서 “최근 우리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로 시작하는 표현을 빈번하게 만나게 되고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정 등은 새롭게 주목받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과 복지 영역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그리고 다문화에 관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 때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2008년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1,106,884명이며 이는 국내 총인구의 2.2%이라는 숫자이고 국가적으로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하인스 워드라는 한국계 미국 풋볼 선수의 방한이 그 계기가 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²⁾ 그리고 충남 아산경찰서의 경우 중국어와 필리핀어로도 운전교습을 실시하고 있다는 보도와 충북 청원군의 내수초등학교는 일본어와 필리핀어로 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있다는 기사들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보도들이다.³⁾

그러나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에도 우리나라에는 10만 명이나 되던 이주 노동자가 있었고⁴⁾ 그 이전에도 주한미군과 결혼하여 형성된 다문화가정이 있었다. 특히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종교문화가 공존하는 다종교문화 사회로서 한국인은 불교인이면서 유교인이고, 유교인인면서 가톨릭인이 되는 등 한 사람이 이중 삼중의 종교를 갖는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기도 하다.⁵⁾

1) 교과서에 기술된 단일민족주의 사례로 지적된 내용: 초등학교 2학년 생활의 길잡이 “우리나라는 한 핏줄을 이어받은 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 “우리는 생김새가 서로 같고, 같은 말과 글을 사용하는 단일민족입니다.”; 중학교 2학년 도덕 “바로 우리가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한 민족이라는 …”; 중학교 3학년 사회 “민족, 언어, 문화가 같은 단일민족인 우리나라는 …”; 고등학교 1학년 국사 “우리 민족은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 국가로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2006년 4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 보도 자료를 한진수,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 자녀 및 청소년 이주민의 삶과 정체성」,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 『다문화 사회의 이해』(서울: 동녘, 2008), 72쪽에서 재인용.

2) 김용신, 『한국 사회에 적합한 다문화교육의 실행전략 및 교수법 개발』(서울: 한국교육정책연구소, 2008), 12쪽(www.kedu.re.kr).

3) 김현빈,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다문화〉 2010/05/03 <http://culturenori.tistory.com/872>. 2011.5.5일 7:36 p.m.

4) 허윤진, 「이주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회의 노력」, 『사목』 296(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2쪽.

5) Hulbert H., *The Passing of Korea*(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69)를 김종순,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종교의 문제: 특히 이슬람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6(2)(서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0), 98쪽에서 재인용.

그러나 최근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전개되는 상황은 급증하는 이민자의 유입과 관련이 있다. 2008년에 비해 2009년의 외국인 비율이 24%나 증대하였다는 외국인 거주자의 급속한 증대⁶⁾와 소외된 채 살아갈 뻔했던 한국계 미국인의 탁월한 성공, 결혼 이민 여성들이 겪는 비참한 사건 등은 한국 사회의 시선을 이미 함께 살아가고 있던 다른 언어와 다른 피부색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갖도록 옮겨 가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즉 오늘날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은 이민에 의해 유발되었고 따라서 본 연구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는 이민에 의해 촉진되는 다문화사회의 양상임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이민 생활은 문화적 만남을 그 시작으로 한다. 이민은 필연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에 이바지 한다. 문화 전달자인 이민은 그들의 언어, 종교, 가치, 신념, 관습, 음식, 노래 그리고 기타 문화적 선물을 전달한다.⁷⁾ 그러므로 이민자의 급증은 그들과 함께 유입되는 문화의 다양성도 급증한다는 의미이다.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의 동인은 노동, 결혼, 탈북 등이며 이민자들은 이주 원인과 목적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국제 결혼자, 새터민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와 같이 이민자의 급증으로 단기간에 다문화사회의 특성이 짙게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면서 각 분야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궁극적으로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들과 전통적 한국 문화를 갖고 있는 다수인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학문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종교교육의 영역에서 예외가 아니다. 종교는 이민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민자들이 도착지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부적응의 첫째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이중성을 띤 복잡한 요인이기 때문에 다문화사회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관심은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종교와 종교교육이 공공정책 분야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많은 연구 지원이 이루어지는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도 종교는 주변부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신광철은 “다문화 이해에 있어

6) 2009년 8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외국인 수는 총 1,106,884명으로 이는 2008년에 비해 24.2% 늘어난 수치로 국내 총인구 4,9593,665명의 2.2%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인 52%, 575,657명은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이며 11.4%에 해당하는 125,673명은 결혼 이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상사주재원 등의 형태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이 9.3%로 103,115명, 국내 대학 등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 7%로 77,322명이다. 또한 이들 외국인의 자녀들 107,689명(9.7%)도 현재 국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dyi8589&logNo=70068465204>

7) 마루하 아시스, 『아시아에서 이주와 가톨릭 다문화 사업』,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편, 『새로운 탈출 2』(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21쪽.

가장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는 종교이다. 종교는 절대적 신념체계로서 특정한 문화권의 핵심적 문화소를 이루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단계 한국사회 다문화교육에서 종교 교육을 통한 다문화 이해의 확장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⁸⁾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에서 가톨릭 종교교육에 관해 다음의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사회·다문화사회 종교교육에 대한 가톨릭의 관점은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사회에서의 가톨릭 종교교육 현황은 어떠한가? 셋째, 다문화사회의 가톨릭 종교교육이 실천 과정에서 당면하는 과제와 도전은 무엇인가?

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활용한 본 연구의 방법은 교회 문헌과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 분석이 주된 방법이며 가톨릭 종교교육 현황 조사를 위해서는 현장 방문과 전화를 통한 담당자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본론에 앞서 필요한 것은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정, 다문화 종교교육 개념에 대한 명료화이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철학적 기반, 정의, 정책에 대한 합의가 없다⁹⁾고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범위와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 용어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했다.

① 다문화사회

이주민의 양적 측면으로만 한국 사회를 다문화사회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철주와 고병철¹⁰⁾은 다문화사회란 특정 사회의 다양한 문화가 용인되고, 이주민의 적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전개되고, 이주민과 그 문화를 둘러싼 갈등 지점들이 인식되고, 각종 차별적 요소들의 해소를 위한 상호 공존 정책이 전개되고, 인정 담론과 정의가 이루어진 사회를 다문화사회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관점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규범적 접근으로 소수자의 문화가 주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문화가 상호존중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 비추어 보면 한국 사회는 아직 다문화사회라 할 수 없고 다문화사회에 접어들기 시작했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많은 문헌에서 우리 사회를 다문화사회라고 한다. 이는 김철주와 고병철이 제시한 규범적인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민족, 언어, 종교, 역사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국가라는 거주 공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일컫는 서술적 접근의 정의로 본다. 따라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다문화사회란 이민자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상호존중이 온전히 구현되는 다문화사회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8) 신광철, 『다문화사회와 종교』 『종교연구』 59(서울: 한국종교학회, 2010), 2쪽.

9) 한경구, 『다문화사회란 무엇인가?』,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 『다문화 사회의 이해』 (서울: 동녘, 2008), 89쪽.

10) 김철주·고병철, 『중등학교 다문화교육 교과과정의 활성화 방향: 교육정책과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6(서울: 고려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2011), 119쪽.

② 다문화가정

본론에서 사용하는 다문화가정이란 결혼 이민으로 의해 형성된 가정을 말한다. 즉 내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한다.

③ 종교교육

종교교육은 특정 종교에 의해 실시되는 신앙교육, 여러 종교와 종교일반에 관한 종교에 관한 교육, 종교적 교육으로 구분되는데 종교교육이 실시되는 상황, 목적, 대상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에서는 종교교육을 종교에 관한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톨릭 종교교육에서 종교교육의 목적은 신앙과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인 복음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인격형성의 도모이다. 교회문헌인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에 의하면 “학교의 기본적인 목적은 인간의 형성이고 종교적 차원은 인간 형성의 불가결한 완성부분이므로 어떤 형태의 학교에나 종교교육은 적절한 것이고 학생과 부모의 의무를 수반하는 권리로 본다. 그리고 종교교육은 신앙과 문화의 적절한 종합을 얻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가톨릭 종교교육은 본질적으로 교리교육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구별되는 동시에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모든 학교의 교과과정의 일부를 이루어야 한다”¹¹⁾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종교교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와 같이 다른 의미를 갖는다.

II. 다문화사회 종교교육에 대한 가톨릭의 관점

성경과 거룩한 전통은 가톨릭 교리의 원천이며 교리는 신앙과 이성을 통해 형성되고 다음 세대로 전해내려 오는 가톨릭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문화사회 종교교육에 대한 가톨릭 관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경과 가톨릭 신앙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교회 문헌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 본 장에서는 성경과 교회문헌에서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사회의 종교교육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가톨릭의 가르침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방대한 성경과 교회 문헌의 내용을 본 주제와 관련하여 의미 있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가톨릭의 인간에 대한 이해, 다양성, 비그리스도인, 종교의 자유, 종교교육, 이민에 대한 인식, 현대의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들 주제는 다문화사회와 그 안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을 설명해 주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11)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 56항.

1. 가톨릭의 인간에 대한 이해

가톨릭 인간관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공동선을 지향하는 공동체 내의 인간이라는 점이다. 이는 가톨릭 사목 활동에 근간이 되는 가톨릭 인간관이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1장 26-28절과 콜로세이서 1장 15-18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토마스 그룹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관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함을 증거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존재 즉 남자와 여자, 모든 인종, 계층, 모든 신조의 평등한 존엄성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¹²⁾

공동체성은 가톨릭관의 인간관이라 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다. 인간은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협력자 없이 즉 공동체의 일원으로 관계 맺음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체성이 가톨릭에서 더 강조되는 이유는 교회의 역할과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강조 즉 공동체 생활의 은총을 통해 다 함께 구원의 문제를 풀어간다는 생각이 가톨릭의 깊은 확신이기 때문이다.¹³⁾

가톨릭 신학자이며 종교교육학자인 토마스 그룹은 『생명을 위한 교육』에서 가톨릭의 인간관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이 모인 공동체에 속한 우리 자신과 타인을 서로 돌보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창세기 4장에서 동생을 죽인 카인이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하느님의 질문에 대해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라는 인간 최초의 관계에 대한 반문이 “내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남까지 돌보아야 합니까?”라는 질문으로 발전되고 그러한 질문에 대한 가톨릭의 답은 서로를 위해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이다.¹⁴⁾

『가톨릭교회교리서』에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선한 인간과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사람은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동일한 이성적 영혼을 지닌 모든 사람은 같은 본성과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다.”¹⁵⁾ 이는 앞서 제시한 성경에 기초한 것으로 이러한 인간 이해는 인간의 권리 존중과 평등한 대우, 사회정의 실천의 근거가 된다. 또한 『사목헌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신비와 그 사랑의 신비를 알려 주는 그 계시 안에서 인간을 바로 인간에게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인간에게 그 지고의 소명을 밝혀 주신다.”¹⁶⁾ “모든 사람은 저마다 이웃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 또 하나의 자신으로 여겨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웃의 생활을 고려하여 그 생활을 품위 있게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을 보살펴야 한다.”¹⁷⁾

12) Groome Thomas, *Educating for Life*, 김도일, 『생명을 위한 교육』(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96쪽.

13) 위의 글, 74쪽.

14) 위의 글, 229쪽.

15) 『가톨릭교회교리서』, 1934항.

16)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22항.

“인간은 자유의지로 자신의 창조주를 찾아 그분을 따르며 자유로이 찬미하고 복된 완전성을 이르도록 바라시는 것입니다”¹⁸⁾라고 되어 있다.

교회문헌에서 제시된 이상의 가톨릭 인간관을 정리하면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동시에 존엄하게 지어진 각각의 인간이 모인 공동체의 공동선 또한 철저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느님과 개인적이 관계를 갖지만 그 만남이 일어나는 일차적 상황은 신앙공동체를 통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가톨릭의 사목과 종교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작용한다. 이는 예수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이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와 함께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라고 가르친 것과 무관하지 않다(마태 22,34-40; 마르 12,28-34; 루카 10,25-28). 이웃 사랑이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

2. 다양성¹⁹⁾

다양성의 문제는 가톨릭교회와 신자에게 끊임없는 도전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²⁰⁾ 신약성경은 예수가 어떻게 다양성을 받아들였는지 또 사도들은 어떻게 이를 인식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담고 있어 다양성에 대한 신학적 성찰에 도움을 준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업, 인종, 성과 나이를 떠나 다른 출신 배경의 사람들과도 생명의 대화를 나눔으로써 ‘다른 이’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²¹⁾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통혼 및 종교 융합에 따른 이단자 또는 민족의 순수성을 띠지 않은 집단이라 하면서 업신여기며 배타적 대우를 했다. 그러나 예수는 이러한 출신 배경을 떠나 사마리아 여인과 생명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사마리아인은 예수의 착한 이웃에 대한 가르침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 등장한다(루카 10,29-37).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28절에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당시 유대인 남자가 날마다 드려야 했던 기도문 “하느님, 저를 이민족이나 여자, 종이 아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 하나이다”의 내용과 근본적으로 반대가 되는 문구²²⁾로서

17)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27항.

18)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17항.

19) 다양성과 관련하여 인용하는 성경은 마루하 아시스, 앞의 글, 23-25쪽의 내용에서 참고함.

20) 마루하 아시스, 앞의 글, 27쪽.

21) 마루하 아시스, 앞의 글, 24-25쪽.

22) 마루하 아시스, 앞의 글, 25쪽.

다름이 차별로 이어지는 당시 문화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드러낸다.

사도행전 2장 1-11절의 오순절 이야기에는 사도들이 다양성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 하였다”는 이야기에는 그 누구도 복음화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모든 인류에게 다가가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톨릭교회교리서』339항에는 “저마다 고유한 존재를 지니기를 하느님께서 바라신 다양한 피조물들은 저마다 고유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무한한 지혜와 선의 빛을 반영한다.” 『사목헌장』36항에는 “만물은 창조의 조건 자체에서 고유의 안정성과 진리와 선, 또 고유의 법칙과 질서를 갖추고 있다.” 즉 모든 피조물의 개별성을 인정하면서 다양성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마루하 아시스는 다양성을 가톨릭교회의 현실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다양성과 다문화주의는 가톨릭교회의 보편적 사명이고 가톨릭교회는 다문화적 현실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²³⁾고 단언한다. 그 근거로 드는 것은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올 그들은 …, 어좌 앞에 또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요한 묵시록 7, 9)에 제시된 약속된 종말이 다문화적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교회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민족과 백성과 언어는 언제나 교회가 처한 현재 상황이므로 교회가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 다양성을 회피하거나 외면할 수없는 조건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즉 다양성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가톨릭의 다양성은 토착화와 가톨릭의 보편성이란 개념을 함께 살펴볼 것을 요청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토착화란 “고유한 문화들 안에 복음을 융화시키고 교회 생활 안에 이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토착화는 다양화와 함께 논의되어 지는 중요한 개념이라 하겠다.

다양성을 가톨릭(Catholic)이라는 용어와 연계하여 살펴보면 가톨릭에서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하는지가 분명해진다. 그룹에 의하면 가톨릭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2세기 초 순교한 안티옥의 이그나시우스 주교로서 그는 교회 공동체가 그에게 보여준 환대에 대한 감사의 편지에서 ‘예수가 있는 곳에 가톨릭교회가 있다’고 적었다. 그가 받은 환대 안에서 예수의 가톨릭 보편성을 경험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이후 교회의 가톨릭 명칭은 인기를 얻었고 예루살렘의 성 시릴은 교회는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Catholic)이며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환영하며, 모든 죄를 용서하고, 모든 덕목을 촉진한다고 말하였다.²⁴⁾ 그 후 가톨릭은 교회의 표시로 사용되었고 오늘날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사도신경)에서 가톨릭 신자들은 “거룩하고 보편된

23) 마루하 아시스, 앞의 글, 23쪽.

24) 토마스 그룹, 앞의 글, 537-539쪽.

교회(The holy Catholic church)를 믿으며”라고 신앙을 고백한다. 즉 가톨릭교회는 가톨릭이라는 이름 안에서 인간의 다양성을 환영하며, 다른 전통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며, 모든 인류와 형제·자매처럼 연대하여 사는 종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²⁵⁾

3.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관계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은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인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에 잘 제시되고 있다. 이는 “인류가 서로 긴밀히 결합되고 여러 민족들의 유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그리스도교들에 대한 관계를 진지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교회의 판단에 따라 비롯된 선언이다. 선언에서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협력하며 그리스도교 신앙과 생활을 증언하는 한편 다른 종교인들의 정신적 도덕적 자산과 사회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증진하도록 신자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이 선언에서는 “가톨릭이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이들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거룩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배척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어느 종교나 사람들이 갖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예를 들어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생이란 무엇인가, 죄와 고통이란 무엇인가 등등 풀리지 않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종교에서 찾으려 하며 종교는 이에 대한 답을 주려고 애써 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종교는 교리와 생활 규범과 신성한 예식들을 제시하면서 인간 마음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며 길을 가르치는 세계의 다른 종교들을 배척하지 않고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비록 가톨릭교회에서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과는 여러 가지로 다르더라도,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진리의 빛을 반영하는 일도 드물지는 않다”²⁶⁾고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다른 종교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그리스도교를 수용하는 입장의 출발은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가톨릭의 포괄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으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배타적인 입장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의 구원론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포괄주의적 입장이다. 이러한 가톨릭의 포괄성이 예수그리스도를 타협의 대상으로 이야기 한다는 것은 아니다. 가톨릭 신앙의 대상은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선한 양심, 바른 행동의 실천은 구원의 요소이며 그리스도교인 및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이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입장이다.²⁷⁾ 즉 타종교를 수용할 수 있는 이유는

25) 토마스 그롭, 앞의 글, 560쪽.

26)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 제2항.

27) 김용태, 『종교다원현상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 『가톨릭 신학과 사상』 23(서울: 신학과 사상학회,

궁극적으로 하느님이 모든 인류의 창조주이고 그 궁극 목적도 하나이기 때문이다²⁸⁾라는 데서 비롯되며,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그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풍요로운 종교생활을 하고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당신과 화해시켰다는 점을 통해 구원의 시작이 예수그리스도라는 데서 비롯된다.

4. 종교의 자유

성경에 종교의 자유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종교자유에 관한 선언』 9항에서도 “사실 계시는 비록 종교문제에서 외부의 강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명시적으로 단정해 주지는 않지만”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자유로이 예수를 따랐음을 알 수 있다.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마태 4,19, 마르코 1,16)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 망설임 없이 생업을 내려 두고 따라 나섰다는 점을 보게 된다. 오히려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르코 8,34)는 것을 보면 권유나 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아주 강한 자유의지가 아니면 오히려 따르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 보인다.

한편 종교의 자유에 관한 교회 문헌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간의 권리로서 다루고 있다. 『인간 존엄성: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은 1965년 12월 7일 반포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으로 인간의 권리로서 종교 자유의 권리를 선언한 문서이다. 공의회는 종교자유를 인간 본성에서 비롯된 권리이며 또한 계시에 비추어 종교 자유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종교 문제의 사회적·시민적 자유에 대한 개인과 단체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²⁹⁾

이 문헌에서 종교 자유를 인간의 권리로 간주하는 근거는 “이성과 자유 의지를 지니고 태어나 개인적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자기 존엄성에 따라 본성적으로 진리, 특히 종교에 관한 진리를 추구하도록 이끌리며 또 그 진리를 추구할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고 보는 데서 비롯된다. “종교 자유의 권리는 인간의 주관적 상태보다 인간의 본성 자체에 뿌리박고 있다.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에 따라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자유의 권리를 지니며 또한 올바른 공공질서를 지키기만 하면 이 권리의 행사는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³⁰⁾라고 밝히고 있다.

이 문헌에서는 국가 권력이 종교자유를 지키는 데 힘써야 하며 동시에 시민사회는 종교 자유의 허울 아래 일어날 수 있는 폐단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

1998), 169쪽.

28)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 제1항.

29) 『종교자유에 관한 선언: 인간존엄성』.

30) 『종교자유에 관한 선언: 인간존엄성』, 2항.

한 보호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히면서 보호가 자의적이거나 편파적인 부당한 방법이 아니라 객관적인 도덕 질서에 부합하는 법률 규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³¹⁾고 밝히고 있다.

신앙은 강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의하면 가톨릭 신앙은 “사랑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정의한다. 신앙은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초자연적 선물에 대한 응답이기에 신앙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루가 복음 24장에는 예수의 죽음 이후 흩어지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있다. 그 내용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길을 가다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그러나 예수는 대화 가운데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말하지 않는다. 한참 동안 같은 길을 가며 이야기를 나누던 제자들은 식사를 하던 중간(빵을 떼어 나눌 때)에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 자신들의 “마음이 타올랐던” 것을 기억하며 자기들과 이야기 나누던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고 곧바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동료들을 만난다. “마음이 타오르는 것”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신앙은 받아들여지지도 성장하지도 않는다.

가톨릭의 종교자유에 대한 입장이 시사하는 바는 첫째, 가톨릭 신앙을 실천하려는 것은 인간 권리로서의 종교자유를 존중받고자 하는 의도이며 국가 권력에 의해 신앙의 실천을 침해받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이다. 둘째, 신앙이 강제에 의해 형성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다문화사회에서의 종교교육의 실천에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셋째, 가톨릭 신앙의 실천을 위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선언은 타 종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즉 타종교인에 대해서도 강제적인 방법으로 신앙을 자라게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하느님 또는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즉 신앙은 자유로운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5. 종교교육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요한 6,44)는 『종교자유에 관한 선언』 제10항에서 인용되는 것으로 인간은 이성으로 자유로이 하느님께 신앙의 순종을 하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하느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의 배경이 된다.

『교리교육총지침』(*General Directory for Catechesis*)은 1997년 8월 11일 반포된 가톨릭 교회의 교리교육에 대한 종합지침서로 교회 교도권에서 이끌어 낸 기본적인 신학, 사목 원칙들,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영감을 준 원칙을 제시하고³²⁾ 교리교육의 중요성을 “현대의 문제점들을 신학적으로 읽도록” 가르치는 데 있다고 한다.³³⁾

31) 『종교자유에 관한 선언: 인간존엄성』, 7항.

32) 『교리교육총지침』, 9항.

이 문헌에서는 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교회의 요청을 “특정 지역의 문화에 스며들어 다른 영역의 지식과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보고 학교 종교 교육에 대한 고유의 복음화적 특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습하는 현장에서 복음이 학생들의 사고방식에 스며들며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이 신앙의 빛을 받아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³⁴⁾

종교의 권리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종교를 진실되게 확실하게 배울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알 이러한 권리와 구원의 메시지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각국 교회가 실시하는 종교교육은 “그 초점이 다양하더라도 그러한 교육을 바라는 가정과 학생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³⁵⁾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의 『종교교육과 교육 선택권에 관한 회람』에서는 다원주의 사회의 종교교육에서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하도록 보장하고 그러한 교육이 부모들의 신념에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요구됨을 밝히고 있다.³⁶⁾ 또한 가톨릭학교에는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비가톨릭 학생들의 종교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교회는 “자기 신앙을 말이나 글로 공공연히 가르치고 증언할” 권리와 의무를 해치지 않으나 “종교적 신앙을 전파하거나 종교 관습을 소개할 때, 특히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는, 떳떳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강제적인 설득으로 보이는 모든 행동은 언제나 삼가야 한다”(종교 자유 선언 4항)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³⁷⁾ 즉 올바르지 못한 강제적인 설득으로 종교교육을 하는 것은 종교 자유를 위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에서는 “어떤 종류의 학교에서나 가톨릭 교육자가 비가톨릭 학생들을 만날 때 그들을 대하는 자세는 존중의 자세만이 아니라 환영하고 대화하려는 개방된 - 보편적인 그리스도교적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있는 - 자세라야 하고 참교육이란 지식의 전수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참교육은 인간존엄성과 진정한 인간관계를 증진하며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께로 자기 자신을 여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³⁸⁾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민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네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로 “가톨릭 학교들은 다른 종교 이민들의 자녀들을 받아들일 때 자체의 고유한 특성과 그리스도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포기하여서는 안 된다. 가톨릭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싶어 하는 부모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어떠

33) 『교리교육총지침』, 16항.

34) 『교리교육총지침』, 73항.

35) 『교리교육총지침』, 74항.

36)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의 종교 교육과 교육 선택권에 관한 회람』, 11항.

37)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의 종교 교육과 교육 선택권에 관한 회람』, 16항.

38)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 55항.

한 학생도 가톨릭 전례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된다.”³⁹⁾

또한 학교 교육 과정에 마련된 종교교육이 학문적 성격을 띠는 것이라면 학생들이 자기 신앙과는 다른 신앙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종교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되, 상대주의는 멀리하도록 가르쳐야 한다.⁴⁰⁾ 이 문헌 69항에서는 참된 종교 간 대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는데 이러한 목적에서 “지역 교회의 일반 가톨릭 신자와 사목 종사자들이 모두 다른 종교에 대한 충실한 교육과 정보를 통하여 편견과 종교 상대주의를 극복하여야 하며, 대화를 방해하고 장벽을 만들며 심지어는 폭력과 오해를 불러오는 부당한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 버려야 한다. 지역 교회들은 그러한 교육을 신학교와 학교, 본당 사목구의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육위원회에서 2009년 발표한 『한국 가톨릭 학교교육 헌장』은 가톨릭 학교교육의 본질, 사명, 원칙 그리고 그 사명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지침을 담고 있다. 헌장 4장은 가톨릭 학교의 교육방향을 담고 있는데 문화적 대화 교육이 생명존중교육, 평화와 정의교육, 봉사교육, 환경보전 교육과 함께 소개되고 있다. 문화적 대화교육은 다문화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문화적 다양성 안에서의 가톨릭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상대방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문화를 지향하며, 또는 다양한 문화들을 신앙의 조명을 통해 가치 지향적으로 해석하여 교육을 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⁴¹⁾ 그리고 문화적 대화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문화교육의 관점을 지니길 권장하고 있는데 다문화교육에 대해서는 “가톨릭교회는 타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성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는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서인 비그리스도교에 대한 선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학생들이 다른 종교적 사상과 전통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갖고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이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교육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⁴²⁾

6. 이민에 대한 인식

성경에서 하느님의 백성은 이민으로 묘사되고 실제로 순례 중인 백성이 많이 등장한다. 신앙의 선조인 아브라함 또한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세기 12,1)는 사명을 띠고 이주민의 삶을 살았다. 이스라엘 역시 이집트 땅에서 이민자의 생활을 경험했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40년 동안 이주민의 삶을 체

39) 『이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62항.

40) 『이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62항.

41) 『한국가톨릭학교교육지침서』, 4.4.1.

42) 『한국가톨릭학교교육지침서』, 4.4.2.

험한 역사를 갖고 있고 신약성경에도 신자들은 “이방인과 나그네”(1 베드로 2,11)로 비유되고 있다.

2004년 반포된 『이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민 사목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교회의 응답으로 오늘날 이민에 대한 교회의 인식을 담고 있는 훌륭한 교회문헌이다. 이는 교회 일치의 관점으로 이민 현상을 바라보고 종교 간 대화, 전통에 충실하면서도 새로운 발전에 열려있는 사목 활동의 증진을 위해 마련된 훈령이다.⁴³⁾ 이 문헌은 이민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데 그것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이민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다.⁴⁴⁾ 그 의미에 대해 성찰에 보면 오늘날 이민은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와 만났던 ‘가난한’ 자들과 다르지 않고, 이들을 돌보는 그리스도교인들은 이들 안에서 가난한 이들 안에 함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문헌은 오늘날 이민 현상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세계적 이민 현상의 다양한 원인에 대해 조명하고 국제 이민자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 것을 촉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서 ‘환대·연대·개방성’이 이주 사목활동의 원칙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문헌은 이미 반포된 사목헌장이나 가톨릭 사회교리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존엄성, 사회정의,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라는 원칙들에 입각하여,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과 통제되지 않은 세계화의 위험이라는 맥락에서 이주의 문제를 조망하고 있다.⁴⁵⁾ 신앙의 눈으로 이민을 보고 있는 이 문서에서는 이민이 시대의 징표이며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하느님 선물의 보고(13항)이며 신앙은 인류의 힘든 여정의 단계를 통해 신앙의 조상들이 거친 여정을 꿰뚫어 보게 한다고 본다.

한편 이러한 “문화의 유동성은 ‘토착화’를 한층 더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만드는데 그 이유는 문화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지 않고는 복음화가 불가능하기 때문”⁴⁶⁾이라는 것이다.

다른 교회와 교회 공동체에서 온 이민들에 대해서 “가톨릭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교 이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개별 교회들은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교회 일치적 형제애를 실천할 수 있고, 손쉬운 평화주의나 개종 권유와는 거리가 먼, 교회들과 교회 공동체들 사이의 더욱 큰 상호 이해에 이를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존중하고 그들 안에서 발견되는 좋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와 형제들 사이의 더욱 깊은 만남의 도구가 될 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도적 사랑의 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흔히 신앙공동체 밖에서 이민자를 돌보는 종교인의 행위를 바라 볼 때 그것은 개종을 권유하는 선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헌에서는 그보다 그리스도교인의 사랑의 실천이 더 우선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43) 『이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소개부분.

44) 『이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38항.

45) 김우선, 「국제이주와 가톨릭교회: 미국 가톨릭교회의 이민자 옹호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3(2) (서울: 한국 사회학회, 2009), 64쪽.

46) 『이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33항.

“가톨릭 신자들은 우리 형제들을 따듯이 맞아들여 교회와 온전한 친교를 이루도록 해 주는 것도 일종의 봉사이며 위대한 사랑의 징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든, 가톨릭교회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사제나 성직자 또는 공동체에게 그들의 종교 예식을 적절하게 집전하는 데 필요한 장소나 물건이 없을 경우에, 교구 주교는 그들이 성당이나 교회 건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예배에 필요한 것을 빌려 줄 수 있다. 상황이 유사하다면, 가톨릭 묘지에서 그들의 매장이나 예배를 허락할 수 있다.”⁴⁷⁾는 제한 없는 개방성의 표명으로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최대로 존중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7. 환대: 이민자에 대한 태도⁴⁸⁾

낯선 이나 나그네에 대한 환대는 성경에 매우 자주 등장한다. 성경에서 환대를 이야기 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신앙의 선조인 아브라함으로 그는 낯선 이들을 극진히 대접했다(창세기 18,1-15). 그리고 나중에 천사로 드러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약속을 하며 축복을 해 준다. 모세 또한 르우엘의 집에서 환대를 받고 결국 그 가정에서 자신의 아내를 만나게 된다(탈출 2,11-22). 이스라엘인에게 환대는 거룩한 의무로 여겨지고 여러 규정에서 소중하게 여겨지는데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33-34절에서는 이방인을 억압하지 말라는 규정을 담고 있다. 즉 “너희 땅에서 이방인이 너희와 함께 머무를 경우,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을 너희 본토인 가운데 한 사람처럼 여겨야 한다. 그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신약성경의 “너희는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듯이 맞아들였다”(마태 25,25)는 이주민 사목의 모토가 되는 가르침으로 『이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가 된다. 특히 이 문헌에서는 “이방인 환대가 초기 교회의 특징이며 하느님 교회의 영원한 모습”이라고 한다.⁴⁹⁾ 그리고 “하느님의 교회는 사실상 유배나 이산 상태에서, 어느 한 곳에도 완전히 동화될 수 없는 문화와 인종 집단 가운데 흩어져 살아야 할 소명을 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개인이나 민족에 대한 편견 없이 모든 인간을 따듯이 맞아들이는 보편적인 나라와 공동체의 만물이며 표지이자 누룩이며 예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인을 따듯이 맞아들이는 것은 교회의 본질 자체이며, 복음에 대한 충실성을 증언하는 것이다”⁵⁰⁾라고 하면서 환대가 교회의 본질 자체이며 복음에 대한 충실성을 증언하

47) 『이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56항.

48) 제임스 크뢰거, 『이주: 선교의 길을 열기』,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편, 『새로운 탈출 2』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49) 『이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22항.

50) 『이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22항.

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⁵¹⁾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도 환대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사명으로 간주되어 교회지도자 즉 하느님의 관리인은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도 포함된다(로마 12,13).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특별히 환대란 낯선 이 즉 자신의 공동체가 아닌 곳에서 온 손님들을 후하게 대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편성 또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는 가톨릭(Catholic)의 의미는 환대의 실천과 깊이 관련된다고 하겠다.

Ⅲ. 다문화사회 가톨릭 종교교육의 사례

다문화사회의 가톨릭 종교교육 사례⁵²⁾ 고찰에 앞서 언급해야 할 점은 가톨릭 종교교육의 개념에 대해서이다. 왜냐하면 종교교육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종교에 대해 가르치는 ‘종교에 관한 교육’, 신앙이 교육활동의 바탕이 되고 있는 ‘종교적인 교육’, 교리교육과 동일한 의미인 ‘종교의 교육’과 같이 여러 의미를 가지며 또한 가톨릭 종교교육은 ‘교리교육’, ‘신앙교육’과도 혼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교육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종교교육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달라질 수 있다.⁵³⁾ 우선 본 장에서 사용하는 가톨릭 종교교육이란 위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며 상황에 따라 교리교육, 신앙교육이란 용어와 함께 사용하며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한편 개념적으로 가톨릭 종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은 가정과 성당, 가톨릭 학교, 다문화 지원센터 및 이주 노동자 지원 센터와 같이 가톨릭의 이주사목 관련 기관들이

51) 예수회가 운영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 김포 『이웃살이』도 이 가르침을 모토로 “이주 노동자들이 결코 차별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고 보호하며, 그들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어려움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활동들을 통하여 이주노동자들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고 이웃이며, 형제자매라는 의식을 우리 안에 고양시키고 그들 안에서 가난하신 그리스도, 나그네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섬김으로써 우리 사회에 복음의 빛을 전하고자 한다.”

<http://www.yiutsari.org/sub1/sub11.php?h=1&m=1>

52) 본 연구가 전체 가톨릭 교육기관과 지원센터의 종교교육 현황을 조사한 것이 아니므로 사례 조사로 제한하고자 한다. 현황에 대한 기초 통계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개인 연구자가 전체 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례 조사는 가톨릭 신문에 보도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여 내용을 확인했으며 천안 지역 이주민 지원센터와 서울지역 가톨릭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현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주교회의 이주사목 담당 실무자와 노동사목 회관의 실무자, 파주(1), 수원(2)의 이주 사목 관련 기관의 담당자, 수원(1), 전남 강진(1), 목포(1), 대구(1)의 가톨릭학교와 다문화 지원센터의 담당자와는 전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서울지역 주일학교 교사와 교구 청소년국과 초등부 주일학교 담당자와도 전화 인터뷰를 행하였다.

53) 이주사목 관련 단체의 담당자들과의 전화 인터뷰 과정에서 그들도 이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다. 그러나 가정의 종교교육은 비형식적이므로 본 논의에서는 제외하고 형식적인 교육이 가능한 성당과 가톨릭학교, 이주사목 관련 단체들에서의 종교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⁵⁴⁾

이론적으로 다문화사회의 가톨릭 종교교육 대상자는 가톨릭 신자 이민, 타 종교 이민, 비신자 이민, 일반 내국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므로 현황 고찰에서도 이 부분은 구분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 대부분의 다문화 관련 정책과 연구가 이민자를 일차적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규범적 수준의 다문화사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반 신자들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1. 성당 주일학교와 성인 신앙교육

앞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톨릭은 다양성에 대한 수용을 바탕으로 오늘날 다문화사회를 촉진시키는 이민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매년 4월 말에서 5월 첫 주간 무렵의 주일을 ‘세계 이민의 날’로 정하고 이민자에 대한 사목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2011년 5월 1일은 96차 세계 이민의 날이었다. 교황은 담화문에서 이민자에 대한 사목의 방향과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세계 이민의 날은 모든 성당의 미사에서 전체 신자들이 이민에 대해 관심을 환기시키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교회 전체의 제도적인 접근과 달리 종교교육의 현장 즉 성당 주일학교와 성인을 위한 신앙교육의 현장에서 다문화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교육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다문화가정 출신의 어린이나 신자들이 있는 성당의 경우 음식 나눔이나 의복 소개 등의 행사를 통해 다문화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러한 사례도 아직은 드물다.

성당 주일학교와 성인 신자를 위한 종교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가톨릭 신자 또는 가톨릭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로써 이때 종교교육은 다문화 종교교육이 아닌 선교와 신앙의 성숙을 돕는 교리교육으로 진행된다. 다문화가정의 어린이 가운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첫영성체를 위해 거주지 인근 성당(본당) 교리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수가 많지 않은데다 현황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톨릭교회는 오래전부터 이주 노동자에 대해 사회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이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 일해 왔다. 1992년 만들어진 서울 대교구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는 시민 단체인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과 더불어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가진 최초의 단체였다.⁵⁵⁾ 그러나 당시 이주 노동자들은 단기체제를 전제로 한

54) 가정을 제외한다고 해서 종교교육 즉 신앙교육에서 가정의 영향력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은 가정교회로서 가장 기초적인 신앙공동체이며 부모는 최초의 종교교육자임을 인식하고 있다.

55) 김우선, 『사목현장의 관점에서 본 이주노동자 사목과 한국 교회의 사명』, 『신학전망』 152(광주: 광주가

것이어서 영구 체제를 전제로 하는 이민이 가져온 오늘날의 문화적 양상과는 많이 다르다. 따라서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이나 지속적인 신자 재교육의 문제는 사목적 관심에서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즉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최근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사목자를 제외하고 성당 주일학교와 성인 신앙교육에서 다문화사회의 이슈가 신앙교육의 내용에 포함되거나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최근 다문화가정 출신의 성인을 위한 예비자 교리반과 레지오 활동을 통해 이주민의 신앙 활동을 돕는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대전교구 오룡동성당의 경우 이주 여성들만으로 구성된 여성 레지오가 시작되어 매주 회합을 계속하고 있다.⁵⁶⁾ 레지오 활동은 가톨릭의 대표적인 신심활동으로서 종교교육의 범주에서 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레지오 활동은 가톨릭 신앙의 성숙을 돕고, 본당 공동체와 일치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므로 여기에서 거론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예비자 교리와 레지오 활동을 제외한 다른 신앙교육을 본당 차원에서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소수인원이면서도 각자 다양한 언어와 문화권 출신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신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교리교사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오룡동 성당에는 외국인 아내를 둔 남편들이 가톨릭 세례를 받고 그 후 사도회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미사 전례에 복사로 참여하는 등 본당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가톨릭신자인 부인을 성당에 데려다 주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세례를 받게까지 되었는데 이러한 신앙 활동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부부들에게 공통의 경험과 종교적 소속감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⁵⁷⁾

이민에 대한 관심, 다양한 종교와 문화의 수용과 존중의 교육은 성당의 일반신자, 주일학교 일반 학생들을 위한 신앙교육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문화사회의 특성이 주일학교의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물론 특정한 이슈와 내용이 주일학교의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연구와 교재개발 과정을 거치므로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주일학교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신앙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도 아직은 실천되지는 않고 향후 주일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는 상황이다.⁵⁸⁾

톨릭대학교, 2006), 83쪽.

56) <다문화 시대, 교회는 지금: 각 교구이주사목현황-대전교구>, 《가톨릭신문》, 2010년 5월 16일, 12면. 레지오 활동은 매주 회합을 원칙으로 하는데 2011년 5월 6일 현재 100주차 회합이 진행되고 있었다.

57) 2011년 5월 6일 오후 5시 천안 모이세 직원 인터뷰.

58) 그러나 서울대교구 초등부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주일학교 담당자, 수원교구 중고등부 주일학교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향후 다문화사회의 특성을 주일학교 교재와 교육활동에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이에 관한 준비 연구와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을 들을 수 있었다. 2011년 5월 3일 오후 3:40분.

2. 가톨릭학교

2011년 현재 전국 가톨릭 학교는 초등 6개교, 중·고등 66개교가 있으나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출신의 자녀수는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중고등학교에 극히 소수의 학생만이 재학하고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⁵⁹⁾

가톨릭학교의 종교교육 현황은 가톨릭 중등학교 종교교육 담당자와의 면담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톨릭학교의 교사들은 아직까지 종교교육에서 다문화사회와 관련한 주제들은 다루고 있지 않으며 향후 다문화사회의 특성을 교육내용 중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현재 가톨릭 중등학교의 교과 수업으로서의 종교교육은 ‘종교’라는 과목명으로 운영되지 않고 인성과 철학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희망자에 한해 방과 후 예비자 교리반, 가톨릭 학생회를 통해 신앙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종교 담당 교사들은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즉 가톨릭학교의 이념과 특성을 반영하는 교과 운영의 기회가 없고, 종교교육은 종교행사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력과 입시 중심의 교육환경 속에서 가톨릭 교육이념을 반영한 교과시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다.

셋째, 비록 가톨릭학교에서 종교교과서 활용률이 50%를 넘지 않지만⁶⁰⁾ 7개 장으로 구성된 중학교 교과서⁶¹⁾에는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는 있고, 6개 장으로 구성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이웃의 종교들’이란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단시간에 방대한 양의 이웃 종교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아 이웃 종교에 대한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2005년 실시한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 현황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참여한 11개 가톨릭 중학교 가운데 ‘종교’라는 과목명으로 종교 수업을 하는 학교는 2개교에 불과하며 창의적 재량 수업(인성) 또는 철학/창의적 재량수업으

59) 전화인터뷰를 실시한 학교에는 다문화가정 재학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0) 이유는 일선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 때문으로 첫째 교과서의 주된 내용이 종교 일반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종교적 접근으로 주당 1-2시간을 활용하여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과 종교, 종교경험, 세계종교, 종교 공동, 한국 종교 등의 주제들은 어린학생들이 이해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종교교사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 교과서가 종교교사들이 믿고 있는 종교교육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교사들은 가톨릭학교의 교사들은 가치관, 생명, 환경, 예절교육, 심성개발 프로그램, 집단 상담 등 인성교육과 가톨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성기선, 『제 7차 교육과정과 가톨릭학교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3(서울: 종교교육학회, 2001), 91쪽.

61) 중학교 교과서 주제 : 인간과 종교, 종교와 문화, 나를 이끄시는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서, 한국 천주교회, 인격완성과 아름다운 세상의 실현/ 고등학교 종교교과서: 나를 찾아서, 인간의 길, 이웃의 종교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의 선택은?, 행복을 찾아서.

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학교 24개교 가운데 5개 학교만 ‘종교’라는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9개 학교는 철학, 종교/철학, 종교/창의적 재량수업, 심리학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다.⁶²⁾

종합하면 현재 가톨릭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 교과 수업시간에 타종교 이해를 돕는 다문화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과서 활용률이나 교과로서 종교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타종교 이해를 위한 종교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성 함양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운영에서 이민에 대한 태도, 소수 문화에 대한 포용과 돌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3. 가톨릭 이주사목 관련 단체

현재 가톨릭에서 이민자를 위한 지원활동과 사목 지원은 다문화지원센터, 쉼터, 이주노동자 상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현재 가톨릭의 이주사목 관련 단체 현황⁶³⁾은 다문화지원센터 33 개, 쉼터 19, 상담소 50 개로 추정된다. 이들 기관에서는 희망자가 있는 경우 사목적인 차원에서 예비자교리와 첫영성체 교리를 진행하고 있고 일부 기관에서는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앙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전교구 이주사목부 사제와 신학생들의 연구 활동에서 전국 각 교구,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이주사목센터와 사회복지시설 등 총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⁶⁴⁾ 이 조사에 의하면 이들 기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들

62) 김율옥·김경이, 『가톨릭학교 종교교육 현황 조사』, 『사목』 318(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31-32쪽.

63) 이는 2011년 3월 21일-24일까지 한국 천주교 이주사목 연수에 참여한 참석자들의 주소록을 원재료로 작성한 자료로서 이들 기관 가운데는 다문화지원센터이면서 상담을 같이 수행하는 곳도 있지만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2011년 5월 13일 한국천주교 주교위원회 이목사목 위원회 실무자 인터뷰 확인 사항.

64) 〈이주사목부 제3회 이주워크숍〉, 《가톨릭 신문》, 2011년 5월 15일, 3면. “사목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약 2달간에 걸쳐 전국 각 교구,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이주사목센터와 사회복지시설 등 총 40개 기관을 조사했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난해 33개에서 올해 97개로 1년 사이에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 또한 지난해 9개 기관에서 올해 40개 기관으로 4.4배 증가했다. 외형적인 모습만 놓고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들을 위한 활동이 지난해에 비해 활발해졌다. 문제는 교회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종교교육보다 학습지도, 언어교육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2011년 4월 현재, 교회 프로그램은 학습지도와 언어교육이 각각 19.6%와 16.5%를 차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종교교육은 지난해 36.4%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지만 올해에는 13.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종교교육에 힘써야 할 교회 입장에서는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학습지도와 언어교육에 힘쓰고 있는 교회는 사업보다는 사목에 중심을 뒀다. 특히 종교교육에 더 중심을 뒀다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사목이 될 수 있다.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선다면 이들 또한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을 위한 프로그램은 2010년 33개에서 2011년 97개로 1년 사이에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학습지도(19.6%)와 언어교육(16.5%)에 치우쳐 있고 종교교육은 13.4%로 2010년도 36.4%에 비해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교회의 종교교육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이 조사는 가톨릭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활동에 대해 조사한 최초의 조사이며 종교교육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학습지도와 언어교육이 종교를 내용으로 하는 과목은 아니지만 이를 지도하는 교사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교육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면 종교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인 까닭에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위의 13.4%의 종교교육은 신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신앙교육일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가톨릭은 특성상 그리고 연구자의 조사 과정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희망자에 한해,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종교교육 즉 교리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톨릭 이주 사목 관련 단체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비중이 낮은 이유는 국고와 지방비 지원을 받는 지원센터의 경우 종교교육을 제한하는 규정도 작용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에서 신앙에 바탕을 둔 종교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할 수 없다고 응답한다. 그러나 성직자와 수도자에 의해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인 경우 그리스도교의 가치관이 반영된 교육 즉 종교적인 교육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현재 지원센터에서 신앙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로서는 대구 가톨릭 근로자 회관 내에는 주일학교 성격의 다솜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개교한 지 6년 되었으며 현재 4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근로자회관은 성인을 위한 기관이지만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천안 모이세의 경우에도 꿈터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는데 학습지도와 신앙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전남 강진에서는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서 대안학교를 개교하였다.

다문화지원센터의 특성상 종교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 대상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과 성인이고 이들에 대한 가톨릭의 사목 활동은 세례 희망자와 성사 준비를 위한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는 타종교 이해를 위한 다문화 종교교육이 아닌 가톨릭 신앙교육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들 기관은 타종교인 또는 비신자에 대해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타종교에 대한 가톨릭의 포괄적인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도 있지만 가톨릭 신자들은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선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톨릭 신앙 공동체의 내부적인 관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적극적인 선교를 촉구하거나 선교 방법에 대한 워크숍 등이 개최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들 기관에서의 종교교육은 타종교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

는 다문화 종교교육이 아니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앙교육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교육에서 요청되는 것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신앙교육이다. 같은 가톨릭 신자라 하더라도 전례의 분위기나 대중적인 신심활동에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자국에서 가져온 고유한 가톨릭 문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 살펴본 이주 사목 관련 단체에서의 가톨릭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교와 지방비와 같이 공적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신앙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둘째, 교리교육이 필요한 경우 희망자에 한해 사목적인 차원에서 인근 본당으로 소개해 주고 신앙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 셋째, 본당 참여가 어려운 학습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주일학교 또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거나 운영을 시작하고 있다. 넷째,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교육에서는 언어적 문제로 적극적인 신앙교육이 어렵다. 다섯째, 가톨릭이 운영하는 다문화 지원센터에는 직원들의 종교에 대해 개방적이며 이들이 자신들의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개방적이다. 여섯째, 가톨릭학교 외 기관에서의 종교교육은 교리교육 또는 신앙교육으로서 다문화 종교교육이라 할 수 없다.

4. 다문화사회에서 가톨릭 종교교육의 특성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다문화사회에서 가톨릭 종교교육의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신자 또는 타종교 이주민과 그 자녀를 위한 가톨릭 종교교육은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작업환경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는 상담소의 경우 구체적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다.⁶⁵⁾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과 권익 옹호라는 측면에서 사업이 진행되므로 종교교육을 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관에서 근무하는 가톨릭 신자들은 그들의 일이 궁극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으로 인식하기에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활동이며 이웃 사랑과 복음화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본다.

둘째, 현재 이주민의 상황은 사회적 약자의 상황이다. 하느님 나라의 동일한 백성인 이들에게 먹을 물과 빵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교인의 사명이다. 앞서 교회의 가르침에서도 언급 되었듯이 낯선 이에 대한 환대는 중요한 그리스도교인의 사명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의 실천은 복음화라고 하는 궁극적인 그리스도교인의 사명의 실천으로 발전한다. 복음화는 언어적 선포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실천된다. 비그리스도교인들도 성당과 가톨릭 교회가 지원하는 다문화지원센터를 찾는다. 그들의 민족 공동

65) 2011년 5월 12일 서울대교구 노동사목회관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체를 만나기 위함이다. 이들은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밖에서 그들의 동료들을 기다린다. 그리고 곤경에 처할 때 지원센터를 찾아 상담과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는 기회가 될 때 예비자 교리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는다. 결과적 보면 이들에게 선교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지원이 처음부터 선교를 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사랑의 실천이 선교라는 열매를 맺은 것이다.

셋째, 가톨릭학교 교과목으로서의 종교과목은 타종교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종교교과의 종교교재 안에는 타종교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교과서의 활용도는 그리 높지 않으며 실제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현행 종교교육과정을 따르고는 있으나 가톨릭 교육 또는 신앙교육의 기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함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넷째, 가톨릭학교와 가톨릭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희망자에 한해 예비자 교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사를 준비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종교교육이라고 여기기 보다는 사목적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최근 이민자의 급증으로 인해 야기된 다문화사회의 특성을 성당 주일학교와 가톨릭학교의 종교 시간에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해당 학생이 있는 경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여섯째, 타종교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천안 ‘모이세의 집’의 경우 직원 9명 가운데 타종교인이 5명이다. 이 가운데는 이슬람, 힌두교, 불교 직원이 있으며 이들에게 가톨릭으로의 개종을 권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살이’라는 지원 기관에서는 태국 공동체를 위해 불교계의 초대가 있을 경우 이들을 연계하는 등 타종교와의 소통을 열어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일곱째, 아직까지 성당이나 가톨릭학교에서 내국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사회의 특성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거나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IV. 다문화사회 가톨릭 종교교육의 도전과 과제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민자와 다문화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지침은 매우 훌륭하게 준비되어 있지만 이것이 종교교육의 실천적인 수준에서 반영된 사례를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⁶⁶⁾ 박문수는 한국 천주교회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접근은 이론적으로는 논

66) 이에 대해 박문수 다문화사회의 도전에 직면한 한국 천주교회의 진로에서 제시된 이주민 사목의 보편적 지침이 한국 교회 안에서 사목정책과 신자들의 의식과 실천에서 반영된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박문수, 『다문화 사회의 도전에 직면한 한국 천주교회의 진로』, 『다문화 사회의 종교를 묻는다』(서울: 문화와 종교연구소, 2010), 73쪽.

의 시작단계이며 활동 면에서는 인권 및 복지 관련 지원 활동 중심이어서 정치적 접근을 포함하는 옹호 활동까지는 이르지 못한 단계로 평가⁶⁷⁾한다. 그러면서 교회의 다문화가정 지원 활동도 정부지원 프로젝트일 경우가 많아서 국가와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이주 노동 사목 담당자들은 제한된 기회의 교육만 실시하고 한국인 신자와의 상호 이해를 돕는 활동과 교회의 보편성을 확인하는 시간도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⁶⁸⁾ 이는 가톨릭교회만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부분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민자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접근이 부재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종교교육의 상황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접근은 논의가 시작도 안 된 그 이전의 단계로 여겨진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다문화사회라는 환경이 종교교육자를 부르는 ‘부름의 단계’ 또는 연구자나 기관에 따라 그 부름에 응답하여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있는 ‘진단의 단계’라 비유하고 싶다. 그동안 한국 가톨릭이 이민자에게 제공한 도움은 ‘첫 환대’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민과 관련한 비상 상황에 대처하려는 도움의 단계였다. 그러나 그 이민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완전한 의미의 환대 즉 더욱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참된 환대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통합, 자녀 교육, 주거, 노동, 단체 결성, 시민권 증진, 그 지역의 사회에 대한 이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⁶⁹⁾

종교교육에서는 어떻게 이민자에 대한 참된 환대를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다양한 문화에 대한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통합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내용은 이민자와 다문화가정 출신의 종교교육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맞이하는 도착지의 전통적 문화권⁷⁰⁾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밝혀 둔다.

1. 종교교육에 대한 오해와 편견 없애기

학교 교육과정 중 종교교육만큼 목적과 내용에 대해 의견이 다르고 갈등적이고, 종립학교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은 영역도 없을 것이다. 현재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종교교육의 목적에 대한 의견은 이분되어 있다. 학교 내부자 특히 담당교사는 종교교육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나 반대로 외부자의 관점 가운데는 종교교육이 호교론적으로 실시되고 특정 종교를 강제하는 종교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염려하는 입장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67) 위의 글, 80쪽.

68) 위의 글, 79-80쪽.

69) 『이민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43항.

70) 이민자와 다문화가정 출신자가 아닌 전통적 내국인을 칭하는 표현이다. 전통적 내국인을 표현하는 데 있어 이민자와 다문화가정 출신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비차별적 용어를 사용하고자 시도한 표현이다.

많은 경우, 종교교육 실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을 한다. 그것은 가톨릭 신자와 비신자, 타종교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에 가톨릭학교의 종교교육과 종교교육의 목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가톨릭학교에서 종교교육은 종교에 관한 교육과 종교적인 교육, 종교의 교육이 모두 이루어진다. 교과로서 ‘종교’ 시간에는 내용적으로 종교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지만 방법적으로 교사의 태도와 가치에 따라 가톨릭 종교적 교육이 스며들어 있을 수 있다. 가톨릭교회는 학교의 목적이 인간의 형성에 있고 종교적 차원은 인간 형성의 불가결한 완성부분이므로 종교교육은 어떤 형태의 학교에나 적절하다고 보고⁷¹⁾ 이때 종교교육은 교리교육과 구분되는 종교적 교육 또는 종교에 관한 교육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톨릭 교리교육의 목적은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돕는 데 있다. 즉 “현대의 문제점들을 신학적으로 읽도록” 가르치는 데 있다.⁷²⁾ 종교교육을 통해 다문화사회라고 하는 시대적 징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종교교육이라는 용어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와 종교교육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개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용어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다종교 이해 교육, 타종교 이해 교육, 신앙교육, 가톨릭교육, 교리교육, 신앙에 바탕을 둔 교육 등 보다 맥락에 맞는 구체적인 용어로 논의가 전개되는 것이 종교교육에 대한 변화의 방향 모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2. ‘환대’를 가르치는 교육

가톨릭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앙교육에서는 가톨릭 교리가 교육내용이 되고, 가톨릭학교의 종교교과와 비신자와 타종교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종교교육에서는 여러 종교의 신앙 내용, 교계제도 등이 교육내용이 된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다문화사회의 타종교 이해와 다문화 수용과 통합을 위해서는 환대를 종교교육의 내용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특별히 환대를 교육내용으로 제안하는 이유는 II 장에 살펴본 바와 같이 낯선 이에 대한 환대는 오래된 교회의 가르침이고 신앙의 실천이고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역사는 한국 사회가 민족주의 내지 국가주의적 문화를 특성으로 하는 사회가 되게 만들었고, 혈통 특히 남자 쪽의 혈통에 따라 내 집과 네 집을 가르는 전통적 관습이 더하여 외국인에 대해 배타성이 강한 사회로 만들었다.⁷³⁾ 게다가 인종에 따른 서열

71)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 56항.

72) 『교리교육총지침』, 16항.

73) 김우선, 앞의 글, 92쪽.

관도 형성되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⁷⁴⁾ 집단주의 문화적 특성을 강하게 가진 한국 사회⁷⁵⁾에서 우리라는 용어는 일상 대화 안에서 매우 쉽게 사용되지만 이는 그 ‘우리’ 안에 포함되지 않는 타인은 ‘남’으로 남겨두게 된다. ‘우리’와 ‘남’을 쉽게 구분하는 그 우리가 참 환대를 통해 통합의 수준으로 다문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환대 그 자체를 교육내용으로 삼아 다루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어떠한 법률과 그 자체의 힘으로 진정 우호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 방해가 되는 공포와 편견, 교만과 이기주의적 태도를 없앨 수 없다. 이러한 태도는 모든 이를 이웃으로 형제로 보는 사랑이 있어야만 사라진다.”⁷⁶⁾ 다름을 수용으로 만드는 데 제도와 법률이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있다. 일상적인 삶의 태도와 방식에서 수용과 존중이 드러날 때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문화의 변화 없이 불가능하다. 문화의 변화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 과정에서 의식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환대를 가르치자는 것은 그런 의식적인 노력이 궁극적으로 수용과 존중이 문화의 비가시적인 수준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3. 대화와 경청의 종교교육

대화와 경청은 타문화 이해의 첫 번째 도구이다. “이민의 유입으로 종교적 차원이 점점 더 혼합적이 되어 가는”⁷⁷⁾ 상황에서 강조되는 것은 대화와 경청이다. 교회 문헌은 여러 곳에서 종교간 대화와 문화 간 대화를 강조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종교 간 대화는 교회의 복음화 사명의 일부”⁷⁸⁾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참된 종교 간 대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는 대화가 쉽지 않음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교회는 “지역 교회의 일반 가톨릭 신자와 사목 종사자들이 모두 다른 종교에 대한 충실한 교육과 정보를 통하여 편견과 종교 상대주의를 극복하여야 하며, 대화를 방해하고 장벽을 만들며 심지어는 폭력과 오해를 불러오는 부당한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 버려야 한다 … 대화는 각 공동체에 공동된 신념을 재발견할 기회로 이해하여야 한다. 기도, 절식, 인간의 근본소명, 초월자에게 열려있는 마음, 하느님 경배, 국가 간의 연대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⁷⁹⁾

그런데 현실적으로 종교가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는 쉽지 않다. 자신의 종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확신이 있고 상대방을 굴복시키거나 회심시키려는 의도 없이 진정한 열린

74) 김우선, 앞의 글, 92쪽.

75) Hofstede G.,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차재호·나은영, 『세계의 문화와 조직』(서울: 학지사, 1996), 89쪽.

76) 『가톨릭교회교리서』, 1931항.

77) 『이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66항.

78) 『교회의 선교사명』, 55항.

79) 『이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696항.

마음을 가진 즉 자신의 신앙을 성숙하게 실천하는 자들이 종교적 대화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대화와 경청은 종교 간 대화에서만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문화 종교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즉 개별 수업 시간에서 대화와 경청은 중요한 교수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학습자가 아는 것, 느끼는 것, 의지를 이끌어 내는 질문을 함으로써 대화가 시작되고 전개된다. 자신들의 경험과 이야기 그리고 의견들이 수업의 주요 내용과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학습하는 종교교육자

다문화사회에서 가톨릭학교의 종교교사들은 타 종교 이해를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가르치고 이를 준비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 종교교육자에게 더 많은 과제가 부과된 것이다. 종교는 문화의 뿌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타종교에 대한 이해는 곧 관련 문화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청한다.

동일한 가톨릭 신앙이라 하더라도 문화권에 따라 신앙의 실천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그 문화의 뿌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의미있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을 실천하고 있는데 특별히 남미 지역의 가톨릭 신자들은 과달루페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 대한 공경이 각별하다. 그래서 멕시코인의 80%가 가톨릭 신자라면 100%는 과달루페 성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이 있다. 미국에 이주한 남미 가톨릭신자들은 과달루페 성모의 축일을 대교구 행사로 도입하고자 하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이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⁸⁰⁾ 문화권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문화와의 진지한 대화 없이 타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이는 다문화 출신의 참석자가 있는 신앙교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의 문화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교육자들에게 학습하는 교육자 상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5. 종교교육에 대한 교회와 학교 공동체의 통합적 접근

다문화사회의 종교교육을 위해 교회와 학교 공동체는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통합적 접근은 종교교육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문화라는 주제와 종교교

80) 필리핀은 성탄절 이전 12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9일간 미사를 드리는 ‘심방가미’(Simbang Gabi)라는 전통이 있다. 이 전통은 필리핀 이민자들이 있는 필리핀 공동체에 소개되는데 환영하는 입장도 있지만 거부하는 입장도 있다; 마루하 아시스, 앞의 글, 36쪽.

육이라는 교육 장면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 강하게 요청된다. 왜냐하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상호존중과 수용은 지식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고 태도와 삶의 방식으로 자리잡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교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공적인 공간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면 한두 시간의 수업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와 교회 공동체가 통합적으로 이를 다룰 때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도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의 교회는 전체적으로 이민 문제에 관련되어 있고 관여되어 있음을 느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⁸¹⁾ “지역 교회들이 사목을 다시 생각하고, 오늘날과 같은 다문화적 다종교적인 새로운 상황에서 신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참되게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사목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회사업가들과 사목 종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지역 주민들에게 복잡한 이민 문제와 외국인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과 적대적 편견에 맞설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한다. 이는 다문화사회가 궁극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상호공존 하는 것을 돕는 것이라면 교리 시간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성당 전체가 통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6. 종교교육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지원과 현장의 연대

교회의 가르침이 잘 반영된 다문화사회의 가톨릭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톨릭교회의 특성상 지역 성당과 이주 사목 지원 단체와 교구와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생 분포에 차이가 있으므로 학교와 기관에 따라 상황이 다를 것이나 종교교육에서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인 현 상황에서 상호간의 정보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기관들은 정보와 자원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기 종교교사 또는 교리교사 간에 그리고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은 가장 적합한 교육 자원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보고라 여겨진다.

특히 학교 밖의 이주 사목 기관에서의 종교교육 즉 신앙교육이 실시되는 경우, 대상자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게다가 언어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교리교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까지 적절한 교재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 교회의 지원이 더욱 필요한데 이주 사목 실무자를 위해 주교회의에서 마련한 ‘엑소두스(Exodus), 이주 사목 담당자 양성주간’이란 교육프로그램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필리핀 마닐라의 이주사목을 전문으로 하는 스칼라브리니(Scalabrini)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이주의 현상, 성경이 말하는 이주, 교회의 가르침, 상담, 프로그램 평가, 옹호, 활동 계획과 같이 이민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교회 프로그램과 봉사에 관

81) 『이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41항.

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⁸²⁾

이들은 교회가 이민을 단순히 선교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교회의 사명을 특징짓는 사람들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특히 이민은 아시아 교회의 사명으로 기도-관상, 친교와 대화, 인간 발전의 통합적인 구성요소여야 한다는 것이다.⁸³⁾

지난 2011년 3월 연수가 있었으나 연수에서 종교교육이나 교리교육이 한 분과로 다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다문화지원센터와 상담, 컴퓨터의 사업으로 구분된 프로그램 안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어졌을 수는 있을 것이나 이주민을 위한 신앙교육이 독립된 하나의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민에 대한 연구와 이민 사목자에 대한 교육이 독보적으로 수행되어온 이 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민자를 위한 종교교육과 교리교육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V. 결 론

다문화사회로 진입할수록 다종교 현상이 심화되어 종교 지형의 변화가 수반되고 종교로 인한 문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⁸⁴⁾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성당과 가톨릭학교의 신앙교육 또는 종교교육 담당자들은 다문화사회의 과제 해결에 자신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비로소 갖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 활동들은 때로 사목적 활동과 혼돈되고 있고 현재의 가톨릭학교에서 교과로서의 종교과목 안에는 타종교 이해가 교육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어 학교에 다문화가정 출신의 학생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한 기존의 종교교과와 다문화사회라는 새로운 상황에서의 종교교육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서도 혼돈이 있다.

본 연구도 구체적인 교육의 장에 제한을 둔 논의가 아니고 가톨릭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기 때문에 결론을 맺는 지점에서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논의를 마치기 위해 다문화사회에서의 가톨릭 신앙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에 초점을 두고 그 역할과 규범을 정리하면서 마치고자 한다.

다문화사회 가톨릭 종교교육의 역할은 환대와 연대 그리고 정의를 가르치는 교육의 장으로서 다양한 문화가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즉 그리스도교 신앙을

82) 스칼라브리니 이주센터는 엑소투스 시리즈라는 교육 자료집 『새로운 탈출』도 제공하고 있어 이 분야에 탁월한 기여를 하고 있다.

83) 파비오 바지오, 『편집인의 말』,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편, 『새로운 탈출 2』(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11쪽.

84) 고병철, 「국가 교육과정 내의 다문화교육과 종교교육-다문화사회와 다종교사회의 연관성과 함의를 중심으로-」, 『다문화 사회의 종교를 묻는다』(서울: 문화와 종교 연구소, 2010), 129쪽.

실천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의 이야기와 경험이 존중받고 참여하는 분위기와 개방적인 대화와 경청은 실천되어야 할 규범이다. 왜냐하면 종교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회가 그런 모습을 띠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지식의 습득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실천적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다문화사회 종교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가톨릭 종교교육자들에게는 종의 영성, 개별 인간의 존엄성과 예언자적 감각을 요청한다.⁸⁵⁾ 왜냐하면 다문화사회라는 현재의 상황에서 종교교육은 문화와 종교 간의 벽을 뛰어 넘으면서도 고유한 정체성을 굳건히 가져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일이기 때문이다. 종교교육자 스스로 찾아 실행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현장에서 직접 신자를 만나고 학생을 만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다문화사회의 종교교육은 없다. 그런데 그들은 곳곳에 흩어져 한번에 많은 인원이 모여 효율적으로 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의 영성과 개별 인간의 존엄성과 예언자의 선도적 역할이 없이는 종교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85) 제임스 크뢰거, 앞의 글, 99-102쪽. 여기에서 이주의 영성으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를 적용하고자 한다. 나머지 두 가지는 파스카 신비의 영성과 마리아의 영성이다. 위에서 인용한 예언자의 영성은 본문에는 정의와 인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라는 의미로 예언자적 감각을 말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예언자의 역할을 위와 같이 다르게 해석하였다.

참고문헌

- 고병철, 「국가 교육과정 내의 다문화교육과 종교교육—다문화사회와 다종교사회의 연관성과 함의를 중심으로—」, 『다문화 사회의 종교를 묻는다』, 서울: 문화와 종교 연구소, 2010.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회의 선교사명』, 1990년 12월 7일 반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http://www.cbck.or.kr/book/book_list5.asp?p_code=k5150&seq=401533&page=5&KPo
[pe=&KBunryu=&key=&keyword=](http://www.cbck.or.kr/book/book_list5.asp?p_code=k5150&seq=401533&page=5&KPo)
- _____. 『가톨릭교회교리서』, 1997년 8월 15일 반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http://www.cbck.or.kr/book/book_list.asp?p_code=k5115&seq=401672&page=2&key=](http://www.cbck.or.kr/book/book_list.asp?p_code=k5115&seq=401672&page=2&key=&keyword=#)
[&keyword=#](http://www.cbck.or.kr/book/book_list.asp?p_code=k5115&seq=401672&page=2&key=&keyword=#)
-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 1982년 8월 15일 반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http://samok.cbck.or.kr/content/sub0106.asp?idx=5843&page=1&keyword=&year=&month=&booknumber=90>
- _____.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의 종교 교육과 교육 선택권에 관한 회람』, 2009년 5월 5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http://www.cbck.or.kr/bbs/bbs_read.asp?board_id=K1200&bid=13004350
- 교황청 성직자성, 『교리교육총지침』, 1997년 8월 11일 반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http://www.cbck.or.kr/book/book_list6.asp?p_code=k5160&seq=401537&page=5&KPo
[pe=&KBunryu=&key=&keyword=](http://www.cbck.or.kr/book/book_list6.asp?p_code=k5160&seq=401537&page=5&KPo)
- 교황청 이주사목 평의회, 『이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2004년 5월 3일 반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http://www.cbck.or.kr/book/book_list6.asp?p_code=k5160&seq=401421&page=1&KPo
[pe=&KBunryu=&key=&keyword=](http://www.cbck.or.kr/book/book_list6.asp?p_code=k5160&seq=401421&page=1&KPo)
- 김용신, 『한국 사회에 적합한 다문화교육의 실행전략 및 교수법 개발』, 서울: 한국교육정책 연구소, 2008.
- 김용태, 「종교다원현상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 『가톨릭 신학과 사상』 23, 서울: 신학과 사상학회, 1998.
- 김율옥·김경이, 「가톨릭학교 종교교육 현황 조사」, 『사목』 318,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 김우선, 「사목현장의 관점에서 본 이주노동자 사목과 한국 교회의 사명」, 『신학전망』 152, 광주: 광주가톨릭대학교, 2006.
- _____. 「국제이주와 가톨릭교회: 미국 가톨릭교회의 이민자 옹호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3(2), 서울: 한국 사회학회, 2009.
- 김중순,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종교의 문제: 특히 이슬람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6(2), 서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0.
- 김철주·고병철, 「중등학교 다문화교육 교과목의 활성화 방향: 교육정책과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6, 서울: 고려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2011.
- 김현빈,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다문화〉, <http://culturenori.tistory.com/872>(2011년 5월 5일).
- 마루하 아시스, 「아시아에서 이주와 가톨릭 다문화 사업」,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국내이주사목

- 위원회 편. 『새로운 탈출 2』.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 박문수. 「다문화 사회의 도전에 직면한 한국 천주교회의 진로」. 『다문화 사회의 종교를 묻는다』. 서울: 문화와 종교연구소. 2010.
- 성기선. 「제 7차 교육과정과 가톨릭학교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3. 서울: 종교교육학회. 2001.
- 신광철. 「다문화사회와 종교」. 『종교연구』 59. 서울: 한국종교학회. 2010.
-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 우리 시대』. 1965년 10월 26일 반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http://www.albummania.co.kr/gallery/view.asp?seq=158031&path=110614120341>
- _____. 『종교자유에 관한 선언: 인간 존엄성』. 1965년 12월 7일 반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http://www.albummania.co.kr/gallery/view.asp?seq=158031&path=110614120341>
- _____.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현장: 기쁨과 희망』. 1965년 12월 7일 반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http://www.albummania.co.kr/gallery/view.asp?seq=158031&path=110614120341> 「사목현장」
- 제임스 크뢰거. 「이주: 선교의 길을 열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편. 『새로운 탈출 2』.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 한건수.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 자녀 및 청소년 이주민의 삶과 정체성」.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 편. 『다문화 사회의 이해』. 서울: 동녘. 2008.
- 한경구. 「다문화사회란 무엇인가?」.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 편. 『다문화 사회의 이해』. 서울: 동녘. 2008.
- 허윤진. 「이주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회의 노력」. 『사목』 296.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한국가톨릭학교교육지침서』. 서울: 가톨릭문화원. 2009.
- Groome, Thomas. *Educating for Life*. 김도일. 『생명을 위한 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 Hofstede, G.,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차재호 · 나은영.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1996.
- 〈다문화 시대, 교회는 지금: 각 교구이주사목현황-대전교구〉. 《가톨릭신문》. 2010년 5월 16일. 12면.
- 〈이주사목부 제3회 이주워크숍〉. 《가톨릭 신문》. 2011년 5월15일. 3면 사목현황.

원고접수 : 2011년 6월 21일 1차 심사 : 6월 28일 게재승인일 : 7월 11일

연구자소개 : 김경이

① 전공 : 교육학 (교육행정, 종교교육) /소속 : 가톨릭대학교

② 관심영역 : 가톨릭학교교육, 성인종교교육, 교사교육, 교육영성

③ 주요논저 : 「가톨릭 신앙공동체 성인 종교교육의 실천적 교육모형」, 「가톨릭고등교육기관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가톨릭학교교육 이념에 대한 연구」, 『교직의 이해』

④ E-mail : clara90@catholic.ac.kr

Abstract

Multi-cultural Society and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Kim, Kyungye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This study focused on Catholic Church teaching about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in the context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roles of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Based on the Bible and Catholic Church documents, following concepts are regarded as the important points for religious education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context. Human was created in the image of one God. Welcoming to differences and openness to the other religious traditions are important approaches in religious education. Catholic Church respects other religions and is open to dialogue and collaboration with the followers of other religions. Religious freedom is a basic human right and faith is a human's response to God's revelation. Evangelizing is the main purpose of religious education in the Catholic schools but giving opportunity for learning about other religions is also not disregarded. Hospitality, solidarity and openness are the basic principles of Catholic immigrant ministry.

Catholic secondary schools are not yet practicing the religious education reflecting multi-cultural societies' characters, however they plan to cover these issues in religious education. The multi-cultural Catholic support centers have helped the immigrants since 1990's but these centers have not practiced religious education for non Christians who did not want to be Christians. The people of these centers, who have practiced Christian's life as good Christians, pointed out the necessity of faith education for the multi-cultural family. In order to practice religious education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the following things required our concern-eliminating bias and prejudice toward religious education, teaching hospitality, using listening and sharing story as the methods of religious education, life-long learning religious educator, the comprehensive approach of church and school community toward religious education, avocation of Catholic church,

and establishing a network between Catholic schools, the multi-cultural support center of Catholics and parishes.

Key words: Multi-cultural Society,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 Immigrant, Hospitality